

## 동물의 고통과 좋은 삶\*

맹 주 만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윤리, 동물윤리

**주요어** 최훈, 피터 싱어, 동물의 고통, 감응력, 좋은 삶, 지각

**요약문**

이 글은 한편으로는 필자가 최근에 발표한 바 있는 두 편의 논문 각각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최훈 교수에 대한 답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한 보충적인 논의들로 전개된다. 필자는 이전의 논문들에서 고통과 쾌락/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의 감응력의 유무가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해서 채식주의의 실천불가능성을 포함하여 채식과 육식의 윤리적 정당성을 평가하려는 입장 역시 옹호될 수 없음을 보이려 했다. 이에 대해서 최훈은 필자의 싱어 비판이 어떤 오해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주장을 무력화하거나 반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무적추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좀 더 개선된 자신의 감응력 이론을 통해 싱어에게 가해질 수 있는 비판 또한 피해갈 수 있다는 한층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나섰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와 같은 최훈의 반박에 비판적으로 대응한다. 필자는 여전히 쾌고 감수 능력 즉 감응력의 유무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고려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거부한다. 즉, 감응력은 한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특히 비록 윤리적 고려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쾌락을 포함한 고통 지각은 한 존재의 총체적인 생명 활동을 구성하는 일부일 뿐이다. 오히려 다양하게 작용하는 감응력의 지각 능력을 한 생명체의 생명활동과 그 본성적 구조 전체와의 연관 아래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통 지각을 그 존재로부터 분리 및 독립시켜 이에 의거해서 한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감응력에 의거한 고립적 독립 논변’이라 규정한 다음, 이를 물리치는 주장을 한 존재의 생명활동과 그 본성적 구조에 대한 총체적 고려에 근거를 둔 ‘좋은 삶에 의거한 통합적 종속 논변’ 아래 전개한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1. 문제와 쟁점들

최근에 필자가 발표한 두 편의 글<sup>1)</sup> 각각에 대해서 최훈 교수(이하 최훈)는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sup>2)</sup> 주지하듯이 필자와 최훈 두 사람의 주장과 논의의 중심에는 기본적으로 동물해방론자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와 그 이론적 근거 역할을 하는 감응력 이론에 대한 잇달리는 해석과 평가의 문제가 놓여 있다.<sup>3)</sup> 그런데 지금까지 동물의 감응력 및 고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필자의 주장의 대강은 동물에게 감응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왜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있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훈에게 이 같은 논점이 충분히 전해지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이 글은 한편으로는 필자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최훈에 대한 답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성격 을 갖는다.

전반적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동물의 감응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대체적으로 동물이 감응력 있는 존재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는 동물 신경학의 성장에 힘입어 동물의 고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선보이고 있는 동물 신경윤리의 성장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 1) 맹주만,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 『철학탐구』 제22집, 중앙철학연구소, 2007.; 「동물의 고통과 식물의 감각」, 『철학탐구』 제26집, 중앙철학연구소, 2009. 이하 각각 맹주만(2007), 맹주만(2009).
- 2) 최훈, 「맹주만 교수는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는가?」, 『철학탐구』 제25집, 중앙철학연구소, 2009.; 「감응력 이론 다시 보기」, 『철학탐구』 제27집, 중앙철학연구소, 2010. 이하 각각 최훈(2009), 최훈(2010)
- 3) 이 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필자의 논문 및 최훈 교수의 두 편의 반박 논문을 하나의 논문처럼 다룰 것이다. 우리의 논문 모두가 하나의 주제 아래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지적할 것이다.

동물의 지위와 그 이해에 있어서 감응력이 주목받기 시작한 역사는 오래 되었다. 실제로 오늘날의 동물 과학자들은 다윈이 1871년에 『인간의 계보와 성 선택』(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에서 감각과 직관, 그리고 인간이 자랑하는 사랑, 기억, 주의, 호기심, 모방, 이성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과 능력들이 저급한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했던 그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sup>4)</sup> 그러나 여전히 감응력 문제에는 몇몇 특정한 감정 혹은 감정 일반이 한 존재 및 그와 범주를 달리하는 존재들 각각의 전체적 특성과 본성적 구조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도 이 같은 문제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두 편의 글 중 앞선 논문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를 통해서 고통 지각의 유무를 한 존재에 대한 도덕적 고려 가능성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고통 지각이 가능한 존재의 범위를 의식적 존재에 한정하는 주장, 이른바 싱어의 ‘감응력에 의거한 고립적 독립 논변’(또는 단순히 ‘감응력에 의거한 논변’ 또는 ‘고립적 독립 논변’)<sup>5)</sup>은 정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선호공리주의와 감응력에 기초한 싱어의 육식의 비윤리성 및 윤리적 채식주의 옹호 논증 또한 그 이론적 토대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최훈은 「맹주만 교수는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는가?」에서 필자의 싱어 비판은 그의 견해에 대한 일련의 오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주장을 무력화하거나 반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필자는 최훈의 반박에 직접 답변하지 않고, 제차 다음의 논문 「동

4) Joyce D'Silva, "Introduction", in Turner, Jacky and D'Silva, Joyce (ed.), *Animals, Ethics and Trade: the Challenge of Animal Sentience*, London·Sterling: Earthscan, 2006, xxi쪽.

5) 이 표현은 필자가 싱어의 논증이 함의하는 바를 좀 더 단순화하고 집약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필자가 제시하는 견해와 뚜렷이 대비시켜 놓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아마도 싱어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감응력에 의거한 논변”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물의 고통과 식물의 감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사 싱어의 고립적 독립 논변이 옳다고 하더라도 식물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에서 배제하는 것, 즉 감응력에 의거한 논변이 고통/쾌락 감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상당히 임의적이라는 이전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시 말해 식물이 동물이 느끼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고통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식물이 생명체로서 의식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마저 배제하지는 못하며, 게다가 의식 유무의 기준으로 제시된 고통 지각이 한 존재에게서 차지하는 지각활동과 관계있다면 식물 역시 그와 유사한 감각활동을 존재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또한 그에 준하는 의식적 존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정한 고통에 한정하여 윤리적 고려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최훈의 반박을 간접적으로 물리치려 했다. 그러나 최훈은 이에 대해서도 「감응력 이론 다시 보기」에서 동물의 고통 중심의 논변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제시한 필자의 식물의 감각에 의거한 논변 역시 ‘인간’과 ‘동물’이 느끼는 ‘바로 그 고통’을 ‘식물’이 느낀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유력한 근거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감응력 이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박이 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훈은 싱어의 감응력 이론에 따른 경우 “채식을 위해 의식이 있는 다른 동물을 죽여야 하므로 채식주의는 실천불가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자신의 감응력 이론을 통해 무척추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와 최훈의 쟁점의 핵심에는 ‘감응력’에 대한 해석의 상이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필자의 주장이 감응력의 존재 방식과 적용 범위에 주력했다면, 최훈의 대응은 주로 감응력의 유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감응력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가 저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개진하고자 했던 견해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 즉, 싱어의 기본 입장과 주장의 전제 조건들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그로부터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와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그 이론과 주장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싱어와 최훈이 말하는 고통, 감각, 지각, 감응력, 의식적 존재 등이 함의하는 문제들을 필자의 적극적인 입장을 토대로 해서 다루지는 않았다. 가령, 고통의 지각능력 즉 감응력이 한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이라면, 고통 감각 자체에 부여하는 그것의 존재론적 지위와 조건들을 식물과 같은 다른 존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통을 한 존재의 도덕적 고려 가능성의 조건으로 간주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오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한정된 동물종에만 해당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려 했다. 이는 최훈의 반박을 염두에 두고서 싱어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물리치려 한 것이었다.

반면에 필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견해는 공리주의와 감응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지위 옹호 자체에 대한 거부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감응력의 유무 여부가 아니라 어떤 존재에게 감응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첫 번째 논문에서 “고통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차원에 대한 해명”<sup>6)</sup>이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분명히 지적해 두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논증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자와 최훈, 혹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논의들은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커 보인다. 반대로 직접적인 해결책은 어찌면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어 논쟁의 장이 바뀔 수도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후자를 택했다.

이하에서 윤리적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근거로서의 지위를 갖는 공리주의 및 쾌감 감수 능력으로서의 감응력에 기초해서 자신의 동물 해방의 이론적 토대의 확고함을 자신하는 피터 싱어의 주장, 그리고 더 나아가 싱어에게 가해질 수 있는 채식주의의 실천불가능성에 대한 필자의 비판을 자신의 감응력 이론에 기초해서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최훈의 주장

6) 맹주만(2007), 252쪽.

모두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자는 고통 지각 또는 쾌감 감수 능력으로서의 감응력의 유무만으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고려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거부하는 주장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이미 필자는 이러한 입장을 저 두 편의 논문과는 별도로 다른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동물처럼 인간과 유사한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갖는다는 것만으로 그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만일 식물처럼 인간과 유사한 “또 다른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온전한 의미에서 종차별주의의 종식이 아니다.<sup>7)</sup>

이러한 논점과 동일선상에서 필자는 이제 보다 적극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즉, 감응력은 한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즉 고통은 한 존재의 총체적인 생명활동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한 가지 구성요소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에 기초해서 고통 현상을 그 존재로부터 분리 및 독립시켜 이에 의거해서 한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감응력에 의거한 고립적 독립 논변’이라 규정할 다음, 이를 물리치는 필자의 주장을 ‘좋은 삶을 의거한 통합적 종속 논변’(또는 단순히 ‘통합적 종속 논변’) 아래 제시할 것이다. 이 논변의 핵심은 인간과 동물을 포함해서 어떤 존재의 감응력/고통은 그 존재의 본성적 구조와 관련 있는 삶 전체 내지는 좋은 삶을 통해서 고려되어야 하며, 반대로 특정한 느낌들에 한정시킨 감응력/고통에 준거해서 어떤 존재를 윤리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그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있다. 필자는 동물의 경우 이러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물 해방이라고 믿는다.

7) 맹주만, 「톰 레간과 윤리적 채식주의」, 『근대철학』 제4권, 서양근대철학회, 2009, 63쪽.

## 2. 동물과 감응력

싱어의 감응력 이론은 동물해방론이나 채식주의를 포함해서 동물과 관련한 윤리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자로서는 이 이론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훈의 말을 빌리면 상당한 듯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감응력이 도덕적 고려의 경계선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의가 없다. 학자들은 그 점은 인정한 다음에 주로 동물이 정말로 고통을 느끼느냐, 인간의 고통을 기준으로 인간 아닌 동물을 평가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내가 보기에도 [맹주만 교수가 지적한(필자 삽입)] 동물의 윤리적 지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논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고통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경계선이라는 점은 문제가 없다. ...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그것은 정당한 선택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차원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과 논변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의 지적은 근거가 없다.<sup>8)</sup>

과연 ‘고통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경계선이다’는 주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옳은가? 최훈은 전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에 기대어 싱어식의 고통 중심의 논변이 “공정한 고려와 평가의 자세를 갖지 않고 있다”<sup>9)</sup>는 필자의 비판을 아주 간명하게 “옳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싱어의 이론이든 다른 학자의 이론이든 “동물 해방의 이론적 토대는 매우 튼튼하다”<sup>10)</sup>고 장담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감응력이 있는 존재만이 지각할 수 있는 “고통이 전제되어야만 이익을 갖는다”<sup>11)</sup>는 견해를 시종일관 고수한다. 이에 반해서 필자가 두 편의 논문에서 제시했던 주장들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즉, “전반적으로 공리주의와 동물의 고통에 기초해서 체식의

8) 최훈(2009), 201-202쪽.  
9) 최훈(2009), 201쪽.  
10) 최훈(2009), 210쪽.  
11) 최훈(2009), 201쪽.

윤리적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는 싱어의 논변은 고통이 인간과 동물 각각에 대해서 차지하는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약점을 안고 있으며, 또한 고통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차원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과 논변에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사 동물의 고통에 대한 싱어의 입장을 받아들여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총체적인 실천적 지침으로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개별적 사례들 각각의 경우의 행동지침으로서는 무력한 것이 되기 쉽다.”<sup>12)</sup> 그리고 “도덕적 존재 구분의 경계를 의식과 비의식의 구분,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의 유무에다 두고 있는 싱어의 논거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임의적이다.”<sup>13)</sup> 마찬가지로 고통을 포함하여 “만일 식물이 감각을 지닌 의식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의식이 갖는 어떤 능력이나 속성의 차이를 식물을 차별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을 경우, 불행하게도 동일한 이유에서 인간과 동물의 의식의 어떤 차이를 근거로 양자를 차별하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sup>14)</sup>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필자가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한 존재에게서 감응력이 차지하는 지위였지 동물이 감응력 있는 존재인지 여부는 아니었다. 중립적으로 평가하면, 현재의 과학적 증거를 놓고 이루어지는 해석들은 대체로 감응력 있는 존재의 범위를 인간에게만 제한하거나 또는 인간과 소수의 다른 종에 제한하고 있다.<sup>15)</sup> 또한 제인 구달이 증명하고 있듯이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서 발견되는 혈액 성분, 상호 수혈 가능성, 면역체계 등의 생리학적 유사성,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DNA 구조

12) 맹주만(2007), 252쪽.

13) 맹주만(2009), 248쪽.

14) 맹주만(2009), 269쪽.

15) J. S. Kennedy, *The New Anthropomorph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B. Bermond, ‘The myth of animal suffering’, in Dol, M., Kasanmoentalib, S., Limbach, S., Rivas, E. and van den Bos, R. (eds) *Animal Consciousness and Animal Ethics*, Van Gorcum, Assen, The Netherlands, 1997, 125-143쪽.; E. M. Macphail, *The Evolution of Conscious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이에 대해서는 James K. Kirkwood, “The Distribution of the Capacity for Sentience in the Animal Kingdom” in Turner, Jacky and D’Silva, Joyce (ed.), 13쪽.

의 차이와 같은 유전학적 유사성, 그리고 일반화, 추상화, 다른 감각들의 연합 정보 전달 능력, 의사소통에 필요한 추상적인 기호의 사용과 이해,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기인식, 감정 표현을 비롯해 다른 개체의 감정(mood)과 욕구의 이해, 협동 능력, 이타적 행위 등도 침팬지가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한다.<sup>16)</sup> 이러한 점에만 비추어 보면, “인간과 동물 사이의 분명한 경계선은 없다.”<sup>17)</sup> 그러나 이런 유사성만으로 인간과 동물(침팬지)에 대한 평등한 도덕적 고려의 당위성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성이 아니라 유사성에는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축한다.

그렇다면 문제와 쟁점의 핵심에 놓여 있는 감응력 또는 고통이란 무엇인가? 싱어는 감응력(sentience)을 간단히 “고통을 느낄 수 있거나 즐거움 또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suffer or experience enjoyment or happiness)이라는 의미로 정의한다.<sup>18)</sup> 또 『동물 해방』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거나 혹은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suffer and/or experience enjoyment)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9)</sup> 즉, 감응력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감수 능력, 즉 느끼는 능력(the capacity to feel)이다.<sup>20)</sup> 또 싱어가 의식적 존재를 감응력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듯이 감응력은 또한 간단히 “의식적/주관적으로 경험한 느낌” 또는 “의식적으로/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sup>21)</sup> 또 감응력과 의식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감응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16) Jane Goodall, “The Sentience of Chimpanzees and Other Animals,” in Turner, Jacky and D’Silva, Joyce (ed.), 3-5쪽.  
 17) Jane Goodall, “The Sentience of Chimpanzees and Other Animals,” 6쪽.  
 18) Peter Singer, “All Animals Are Equal,” in *Philosophic Exchange 1*, summer 1974, 172쪽.; 『실천 윤리학』, 황경식·김성동 옮김, 철학과현실사, 1997, 84쪽.  
 19)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new revised edition, New York: Avon Books, 1990, 8쪽.  
 20) C. Cohen and T. Regan, *The Animal Rights Debate*, Lanham · Boulder · New York ·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48쪽 참조.  
 21) James K. Kirkwood, “The Distribution of the Capacity for Sentience in the Animal Kingdom,” 12쪽.

것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sup>22)</sup>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응력의 핵심 요소인 느낌(feel)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감각, 지각, 감정, 의식 등 많은 인지 기능과 관계있으며, 이들 중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이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에는 고통과 그것을 느끼는 주체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데, 과연 지각 활동이나 의식 활동, 심지어는 감각활동이나 감각기관과 관계하는 주체에 대한 이해에 따라 고통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 3. 감응력에 의거한 고립적 독립 논변

그러면 먼저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고민해보자. 싱어에 의하면, “고통은 의식의 상태, 즉 ‘정신적 사건’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관찰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고통이란 우리가 느끼는 그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외부적인 징후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sup>23)</sup> 심지어 뇌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는 과학자의 기록도 고통 자체에 대한 관찰은 아니라는 것이다.<sup>24)</sup>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싱어, 그리고 최훈의 두 편의 반박 논문에는 이런 차원의 고통을 각각의 상이한 개별적 종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감응력과 관계하면서도 동시에 의식의 상태이기도 한 고통은 어떤 차원의 현상인가? 그것은 어떤 감각 혹은 지각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현상 아니면 실체적 사건인가? 그러나 어떤 경우든 고통은 감응력을 조건으로 하므로 그것이 감각 내지는 지각에 의존적 현상임은 분명하다.

22) James K. Kirkwood, “The Distribution of the Capacity for Sentience in the Animal Kingdom,” 21쪽.  
 23)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10쪽.; 맹주만(2009), 255쪽.  
 24) 이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맹주만(2009), 255쪽 이하.

하지만 감각과 지각은 그 각각이 갖는 의식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해석에 따라 상호 호환가능한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메를로 폰티의 신체(Leib)의 현상학이 보여주는 지각의 철학처럼<sup>25)</sup> 한 존재의 근본적인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기능과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크게는 지각을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 또는 존재와 감각의 동일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입장들의 역사도 이 점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전자는 멀리는 파르메니데스까지, 가까이는 근대의 합리론적 전통에서, 후자는 고대 이오니아 철학과 경험론적 전통에서 발견된다.<sup>26)</sup> 또 가장 일반적으로 지각을 “의식적인 감각경험”<sup>27)</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의식, 감각, 경험 등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때문에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좀 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일단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감각 또는 감각기관(sense organ)은 생명체의 내외의 지각(감각) 활동기능에 필요한 신체적(물리적) 기관을 나타낼 경우에 한정하고, 감각(sensation)은 감각을 통해 신체의 내부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동적인 의식 현상, 지각(perception)은 감각들의 연합과 통합을 수반하면서 대상의 인식에 능동적 및 자발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주체의 인식 능력의 의미로 사용하자.

이상과 같은 구분에 따를 경우, 고통 현상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개입한다. 하나는 고통 사건과 관계하는 신체적 통로 또는 감각기관, 다른 하나는 이 기관에 현상하는 내용으로서의 개별 감각들 및 단순 감각들로서의 고통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체의 능동적 개입에 의한 감각들의 연합 내지는 통합으로부터 발생하는 느낌(감정)이나 앎으로서의 고통 지각이 그것이다. 가령 단순 자극에 의한 물리적인 고통이나 통증

25) M. Merleau-Ponty, *Phänomenologie der Wahrnehmung*(1945), aus dem Französischen übersetzt und eingeführt durch eine Vorrede von Rudolf Boehm,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66.

26) 르노 바르파라, 지각 : 감각에 관하여, 공경이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95-96쪽 참조.

27) E. Bruce Goldstein, 감각과 지각, 정찬섭(역) 역, 서울: 시그마 프레스, 1999, 8쪽.

에는 기본적으로 감각기관과 감각 두 요소가, 그리고 가족의 죽음, 좌절감, 상실감, 고통의 예견에서 오는 고통 등과 같은 심적 고통은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적 고통에는 반드시 느끼거나 지각하는 인지 능력이 개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각적 지각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듯이 어떤 현상의 목격 자체가 심적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태 연관에서 한 존재의 지각활동 내지는 생명활동에서 감각 및 지각이 어떤 지위와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물음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지각(혹은 감각지각 혹은 감각)에는 다양한 감각들(지각들)이 있으며, 심지어 통일작용으로서의 지각(감각) 일반이 있을 수도 있으며, 특히 이런 지각은 감각기관과 지각(감각)의 총체적 결합체로서 그 각각과 전혀 다른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차원과 의미를 갖는 신체 내지는 그 구조적 작용과 분리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 다양한 지각들 혹은 신체의 지각활동 중에서 고통 지각은 무엇이며, 감응력의 작용과 관계하는 그 밖의 다른 다양한 지각들은 또 무엇인가? 필자가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식물의 감각’을 화두로 삼은 것도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였다. 다시 말해 동물의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 감각 이외의 감각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식물의 존재를 통해서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최훈은 이 점은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만일 그의 반박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이 점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sup>28)</sup>

주지하듯이 상어의 고통 옹호 논문은 의식을 감응력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그리고 감응력을 고통 지각의 가능 조건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28) 필자는 동물 또한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한 생명체에서 차지하게 될 지위와 의미와는 구분되어야 할 문제이며, 더욱이 고통을 느끼는 동물 존재에게서 그것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는 것과 동물 존재의 생명활동 전체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결국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근본적으로 동물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음미되어야 할 여지가 생긴다. 이 점은 다음 절의 주제인 ‘좋은 삶에 의거한 통합적 종속 논변’에서 상론할 것이다.

감응력은 지각이 감각기관과 의식을 전제로 하는 지각활동 내지는 지각 능력이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감응력의 정의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싱어는 감각과 지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감응력 자체를 하나의 통합적 인지능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감응력은 이미 감각기관, 감각, 지각, 의식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의식의 상태에서 고통과 같은 정신적 사건이다. 로크 역시 “의식”을 “인간의 정신(mind) 속에서 작용하는 지각”<sup>29)</sup>으로 정의하면서 감각과 지각 내지는 의식의 공동 작용으로 감각 경험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존 쉘의 견해이다. 그는 의식의 구조적 특징으로 12가지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 마지막 12번째가 쾌·불쾌의 차원인데, 이에 다시 다양한 의식의 상태가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고통이다. 이들 다양한 의식 상태는 싱어가 말한 감응력을 지닌 존재들의 반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쉘은 쾌, 불쾌와 관련해서도 고통 이외의 다른 의식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재미, 즐거움, 성냄, 숙태움, 흥겨워함, 지루해함, 황홀함, 메스꺼움, 욕지기남, 열성적임, 공포스러워함, 싫증남, 매혹됨, 행복함, 불행함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쾌·불쾌의 차원에는 더 많은 하위의 다른 차원들이 존재하는데, 심지어 쉘은 성적 희열을 느끼면서도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며, 신체적 고통을 느끼면서 몸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도 들고 있다.<sup>30)</sup> 나아가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고찰한 지각 작용 및 지각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 방식에 따르면, 한 존재의 신체는 지각 내지는 지각작용과 본질적인 관련이 있다. 폰티의 언어로 말하자면 “지각의 현상학은 그 기초를 신체의 현상학에서 발견한다. 폰티에게 신체는 지각의 가능성의 조건이다. 신체는 단적으로 선험적 관점이다.”<sup>31)</sup> 이

29) John Lock,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690), ed. John W. Yolton, London, Dent, 1976, 42쪽; 맹주만(2009), 259쪽.

30) John R. Searle, *The Rediscovery of the Mind*, the MIT Press, 1992, 141-149쪽; 맹주만(2009), 259쪽.

31) M. Merleau-Ponty, *Phänomenologie des Wahrnehmung*, v쪽 및 그 이하.

경우 어떤 존재들에 고유한 신체 지각의 상이함은 상이한 세계인식을 낳으며, 따라서 고통(감응력)은 그들 존재 각각의 신체 지각과 분리할 수 없는 내적 현상 및 사건이며, 따라서 이를 그들 각각의 신체 지각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양할 수 있는 감정 내지는 감정 상태들을 한 존재의 신체 지각 또는 의식적 지각 일반적으로부터 분리된 단 한 종류의 감응력(고통/즐거움)으로 단순화시키거나 대표 감정 한 두개로 모두 묶어둘 수 있는가? 또한 외연을 넓혀서 싱어와 공리주의에서처럼 행복과 관계하는 포괄적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러한 감정을 갖는 관련 생명체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에 반대하는 필자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즉, “그렇다면 동물을 포함한 의식적 존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가 고통만이 아니라 이 같은 상태들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sup>32)</sup>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정확히 이런 것이었다. 과연 어떤 한 존재 A에게서 그가 느끼는 고통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그와 유사한 것을 느끼는 어떤 존재 B를 A가 속해 있는 도덕적 범주에 포함시키고, A 존재의 고통과 유사한 것을 느끼지 않는 존재 C를 그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필자는 이 같은 맥락에서 ‘식물의 감각’ 문제를 들고 나와 식물에게서 감각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싱어가 주장하는 동물의 고통 감각에 해당하는 그런 감각이 식물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보이려 했다. 즉, 고통 혹은 감정이 동물 혹은 한 생명체에게서 차지하는 존재론적 지위,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압묵적 전제 아래 식물의 그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싱어가 범한 것과 유사한 오류를 틀랜드도 저지르고 있다. 그의 관점은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고통 지각은 곧 의식 있음이고 그 점에서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통증, 공포, 불안, 만족감을 안

32) 맹주만(2009), 259쪽.

겨주는 쾌락, 즐거움, 행복 등의 감정을 고통/쾌락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감정 상태 아래 묶어 두려 하고 있다.<sup>33)</sup>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연 통증, 공포, 불안 등의 감정은 고통과 의미론적으로 동일한 사건인지를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만일 최소한 한 존재의 본성적 구조가 다른 존재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면, 이것들은 서로 다른 감정 내지는 의식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내 손등이 바늘에 찔렸을 때 내가 느끼는 통증(고통)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아픔은 동일한 감정은 아니다. 이에 대해 싱어는 양자의 경우 모두 그것은 의식과 감응력의 존재를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따라서 양자의 고통은 그 양의 크기에 있어서만 차이가 날 뿐 결국 고통이라는 현상은 동일한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불안은? 일부 동물도 느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불안의 감정과 고통의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역시 아마 감응력이 관계하는 다른 지각들 내지는 감정들 및 그들의 본성적 구조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를 특정한 하나 혹은 몇 가지만을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감정들의 이해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심지어 고통 지각과 같은 의식적 감각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다른 감각은 갖고 있는 의식적 존재, 즉 싱어가 말하는 갑각류에 해당하는 바다가재, 게, 새우 등, 그리고 식물과 같은 존재 역시도 자신들의 생명활동을 가능케 하는 어떤 다른 감각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동물과 식물의 감각기관 및 감각(생명)활동은 분명히 다르지 않은가.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필자가 하려는 주장은 이 같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만일 어떤 존재에게서 고통 사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존재가 고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혹은 그 존재의 생명활동 과정에서 고통이 존재하게 된 것이며, 또한 고통을 지각하지 못하지만 다른 지각을 갖는 다른 존재의 경우에도 이 같은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물의

33) 마크 롤랜즈, 『동물의 역습』, 윤영삼 옮김, 달팽이출판, 2004. 20-57쪽.

감각 역시, 설사 그들이 인간과 일부 동물들과 같은 고통을 지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활동에서 동물의 고통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하는 그런 감각이 식물에게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한 생명체의 생명활동에는 다양한 지각활동이 있으며, 그 존재가 고통을 지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그 때문에 바로 그 존재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그 존재의 활동에 속해 있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정한 지각을 그 존재의 다양한 지각활동에서 분리시켜 다시 그것에 의해서 그 존재의 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규정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고립적 독립 논변은 부당한 환원주의적 오류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좋은 삶에 의거한 통합적 종속 논변’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이해한다.

#### 4. 좋은 삶에 의거한 통합적 종속 논변

‘통합적 종속 논변’은 한 생명체의 생명활동 자체에 주목한다. 모든 생명체는 그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합 이상이다. 즉,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원칙을 따른다. 이에 의하면, 고립적 독립 논변의 최대 약점은, 싱어와 최훈 모두, 고통 내지는 감정을 그것이 본래 속해 있는 한 존재의 본성적 구조 연관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 그것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통과 같은 의식 현상, 이른바 고통의 현상학적 감각, 즉 “현상학적 고통”<sup>34)</sup>의 실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특정 부위에서 감지되는 고통의 신경생리학적 흔적을 발견해내어 그에 타당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려고까지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신경생리적 과정이 사실적으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생명체의 생명활동의 일부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 존재가 비로소 그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필자의 예측으

34) 최훈(2010), 131쪽.

로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기껏 해서 고통 혹은 통증 지각의 신경생리학적 내지는 물리화학적 매커니즘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곧 한 존재가 겪게 되는 고통의 주관적 체험과 동일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것이 그의 삶(생명활동)에 있어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통과 통증 사이에는 직관적 내지는 상식적 차이가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는 그만큼 우리가 감응력과 함께 한 존재의 생명활동과의 전체적 연관 아래서 감각, 지각, 의식 등의 작용과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면 감응력 문제와 관련해서 고통과 지각(감각)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우선 지각 경험의 경우에, 커크우드의 설명을 빌리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느낌들 중 보기, 소리, 맛, 온기, 냉기 및 촉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들과 같은 느낌들은 외부 감각기관과 결합되어 있으며, 피곤, 불안이나 희열 그리고 통증(ache)과 고통(pain)과 같은 국부적인 느낌들은 우리의 뇌에게 신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감각기관과 결합되어 있다. 그 밖에 얼핏 발치에 뱀이 있다는 착각에서 유발되는 공포, 이를 보고 즐거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환희, 음악이나 아픈 기억, 행복한 사건 등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하는 슬픔이나 기쁨의 느낌처럼 내부와 외부의 감각기관의 연합작용에 의해서 촉발되거나 또는 우리의 뇌가 의식적이든 잠재의식적이든 부단히 수행하는 내면적 대화에 의해서 촉발되기도 하는 사유 및 감정과 결합된 일련의 느낌들에 대한 경험도 있다. 이처럼 감응력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sup>35)</sup> 또한 이러한 지각들은 고통 현상만이 아니라 의식적 존재의 내외부의 다양한 상태들과 관계하는 모든 활동에 관계하거나 개입한다.

지각 작용을 이 정도로 문제 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어쨌든 그

35) James K. Kirkwood, "The Distribution of the Capacity for Sentience in the Animal Kingdom," 13쪽.

시비를 떠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 존재의 본성적 구조와 지각활동의 관계이다. 심어가 감응력과 의식의 관계를 강조했듯이 단순한 감각자료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어떤 것을 느끼는 혹은 인식하는 활동으로서의 지각 작용에는 행위 주체의 인지 능력이 개입한다. 그것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판단력이든, 흡스나 스피노자, 맨 드 비랑 등의 근대철학자들이 주목한 바 있는 주체의 의지적 노력 또는 이에 수반되는 감정이든 이 같은 행위 주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전제되어야 그저 느껴지는 것만이 아니라 느끼는 행위 및 그에 따른 고통(단순한 물리적 통증이 아니다)과 같은 이차 반응이 가능하다.<sup>36)</sup> 이러한 지각의 내재적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일단을 외부의 대상을 지각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외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 감각자료, 감각내용, 감각, 지각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비록 대상 인식이 이 같은 요소들이 각각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단정하기 어려운 인식론적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단일한 외부 사물에 대해서 인간 혹은 동물이 어떤 경우에는 유사하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다르게 혹은 한쪽은 반응을 보이고 다른 쪽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로부터 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본성 혹은 본성적 구조에는 유사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마 상술한 바 있는 다양한 감정적 혹은 의식적 반응이나 사건들 역시 그들 각각의 존재의 유사하거나 상이한 본성적 구조의 차이로 인해 자기 한편으로는 유사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이하기도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초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통은

36) 이 경우 느끼는 것과 느껴지는 것, 감각의 수동성과 지각의 능동성(이 경우의 능동성은 제한적 의미만을 갖는다. 지각은 이미 그 말이 함의하듯이 직접적으로 감각과의 관계에서 언급되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감각기관 혹은 감각과 무관하다면 이때는 지각이라는 말보다는 이성과 정신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에서 무엇이 근원적이고 파생적인지, 다시 말해 느끼(려)는 의지적 행위 특성을 감각지각을 갖는 모든 존재에게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즐거움 혹은 쾌락 혹은 이와 유사한 어떤 상태를 느낄 수 없는 존재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느낌이다. 고통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게 고통이나 즐거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즐거움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고통만을 느끼거나 또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만 느끼는 그런 존재를 예상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렇다면 고통은 언제나 그 짝 개념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느낌이다. 그런데 썰 그리고 커크우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동물 각각의 지각활동에는 고통이나 즐거움 말고도 그들 각자에게 속하는 다양한 다른 감정적 반응이나 상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같은 유사함 및 상이함의 차이는 또한 그들 각각의 본성적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그들 각자에게서 발견되는 고통을 피하거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행위들은 한 존재의 본성적 구조의 총체적 연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sup>37)</sup> 따라서 감응력에 의거한 어떤 지각 반응들 역시 이에 근거해서 그들 각자에게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 되며, 그 척도는 감응력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해당 존재의 본성적 구조와 그것의 총체적 연관성이 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는 생명체들의 생명활동에 있어서 그들에게 좋은 삶이 갖는 의미는 최소한 그 본성적 구조의 차이만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sup>38)</sup> 가령 동일한 사건(고통)이 인간의 삶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동물

37) 비록 권리 개념에 근거해서 동물에 대한 의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 역시 싱어와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톰 레간이 싱어를 겨냥해 고통과 쾌락이 아니라 이를 내용물로 담고 있는 그릇 자체가 실재적(real) 가치를 갖는다고 한 것도 감응력에 의거한 독립적 독립 논변의 약점을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C. Cohen and T. Regan, *The Animal Rights Debate*, Lanham·Boulder·New York·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53쪽.; 맹주만, 「톰 레간과 윤리적 채식주의」, 51쪽.

38) 동물적 삶이 인간적 삶과 근본적인 구별된다는 것을 동물적 삶의 본성으로부터 해명하고 있는 주목할만한 한 가지 시도로 하이데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W. McNeill, "Life Beyond the Organism: Animal Being in Heidegger's Freiburg Lectures, 1929-30," in H. Peter Steeves (ed.), *Animal Others : on Ethics, Ontology, and Animal Life*, foreword by Tom Rega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197-248쪽.

의 삶에서는 나쁜 것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명활동과 그에 따른 본성적 구조가 다르며, 그로부터 성립하는 좋은 삶의 의미가 다르거나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 존재의 본성적 구조와 그로부터 성립하는 좋은 삶에서 고통(혹은 즐거움이나 행복)을 따로 독립시켜 이로부터 다시 다른 본성적 구조를 갖는 생명체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좋은 삶은 그 존재의 본성적 구조에 의존적이며, 그들 삶의 통합적 연관 속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간 아닌 동물에게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마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레이콕이 들고 있는 비유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sup>39)</sup> 그의 비유를 활용해 보면, 이 문제는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이 제기했던 물음, 즉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What is it like to be a bat?)”<sup>40)</sup>에 답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가능한 태도도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하나는 박쥐를 박쥐에게 하는 것이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박쥐의 주관성, 박쥐에게 좋은 삶 같은 것에 결코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태도이며,<sup>41)</sup> 두 번째는 “인간의 경험은 만물에 대해서, 일체의 객관성에 대해서 척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주관성에 대해서도 척도다”라는 무모할 만큼 철저하게 인간중심적 입장에서 인간이 이해한 박쥐가 곧 박쥐를 박쥐에게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태도이다.<sup>42)</sup> 그러나 필자는 레이콕처럼 이 둘 모

39) Steven W. Laycock, “The Animal as Animal: A Plea for Open Conceptuality,” in H. Peter Steeves (ed.), *Animal Others : on Ethics, Ontology, and Animal Life*, 271-281쪽.

40) T. Nagel, “What is it like to be a bat?,” in *Philosophical Review* 4(1974), 435-450쪽.

41) 이 비유는 레이콕의 표현을 필자가 차용한 것이다. 그의 글에는 좋은 삶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42) Steven W. Laycock, “The Animal as Animal: A Plea for Open Conceptuality,” 271쪽. 레이콕은 첫 번째 입장을 “현실주의적 가정”, 두 번째 입장을 “이상주의적 제안”으로 규정하면서 이 둘 모두에 반대한다.

두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제3의 길, 즉 생물의 주관성 (animate subjectivity)은 인간중심적 관점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결정불가능하지만, 생명체의 고통 등에 대한 유의미한 선택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태도<sup>43)</sup>에 대해서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간에게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 않듯이 동물 혹은 다른 생명체들에게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란 무척 어려운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리가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도 아마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분명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결정 가능한 제3의 길은 필자가 주장하듯 한 존재의 생명활동과 삶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와 이해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 학대나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동물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고통이 그들의 좋은 삶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들이 참아낼 수 있는 고통을 선사하기도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올바른 길 어디쯤인가 서 있는 것 아닌가.

## 5. 맺음말

싱어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필자의 주장에 대한 최훈의 반박들 역시 일부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며, 반면에 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단순한 진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반박과 주장을 고통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동물이 실제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또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다만, 필자 역시 상식적 수준에서 일부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며, 식물은 우리가 인간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43) Steven W. Laycock, "The Animal as Animal: A Plea for Open Conceptuality," 276쪽. 그리고 이하.

고통은 느끼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가 더 중요시 한 것은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느낌 자체가 아니라 그들 각자가 어떤 고통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 존재가 어떤 방식이든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인간 혹은 동물 존재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존재가 인간 혹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에 적합한 방식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며, 고통 (감응력)에 대한 이해는 이런 접근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 존재에게는 그를 인간 존재에게끔 해주는 고통 이외의 다른 다양한 능력과 감정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바로 그 인간이 되는 것이며, 이 같은 관점은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고통 혹은 감응력의 유무만을 유일한 독립 변수로 해서 한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거부한다.

도덕적 문제에 관한 한 인간은 인간적 방식의 도덕적 관점에서, 그리고 동물은 동물적 방식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감응력이 없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범주를 달리 하는 존재들 상호간에 충돌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존재들 상호간의 문제해결 방식과 동일할 수 없다. 반대로 만일 모든 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본성적 구조가 동일하며, 따라서 좋은 삶의 의미도 동일하다면, 우리는 양자에게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고민은 인간과 동물 공히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면, 그리고 인간이 고통을 싫어하듯이 동물 또한 고통을 싫어한다면, 동물의 고통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를 동물의 좋은 삶에 근거해서 접근하는 것이며, 이에 기초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할 것인지에 두어져야 한다. 한 존재에게서의 고통이 다른 존재에게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역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은 그들 각각의 경우에 그들의 본성적 구조와 그에 기초한 좋은 삶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감응력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통의 양적 차이

를 판정하는 계산법에 의거해서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평등과 대우 및  
정당한 차별을 허용하는 방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물해방이 아니다.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 르노 바르바라, 『지각 : 감각에 관하여』, 공정아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 마크 톨랜즈, 『동물의 역습』, 윤영삼 옮김, 달팽이출판, 2004.
- 맹주만,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 『철학탐구』 제22집, 중앙철학연구소, 2007.
- 맹주만, 「톰 레간과 윤리적 채식주의」, 『근대철학』 제4권, 서양근대철학회, 2009.
- 맹주만, 「동물의 고통과 식물의 감각」, 『철학탐구』 제26집, 중앙철학연구소, 2009.
- 메를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지성사, 2002.
- 최훈, 「맹주만 교수는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는가?」, 『철학탐구』 제25집, 중앙철학연구소, 2009.
- 최훈, 「감응력 이론 다시 보기」, 『철학탐구』 제27집, 중앙철학연구소, 2010.
-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황경식·김성동 옮김, 철학과현실사, 1997.
- \_\_\_\_\_, 『동물 해방』, 김성한 옮김, 인간사랑, 1999.
- Goldstein, E. Bruce, 『감각과 지각』, 정찬섭(외) 역, 서울: 시그마 프레스, 1999.
- Clark, Stephen S. L., *The Moral Status of Animals*, Oxford: Clarendon, 1977.
- Döring, Sabine A. (hrsg.), *Philosophie der Gefühle*,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9.
- Lock, J.,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690), ed. John W. Yolton, London, Dent, 1976.
- McNeill, W., "Life Beyond the Organism: Animal Being in Heidegger's Freiburg Lectures, 1929-30," in H. Peter Steeves (ed.), *Animal Others: on Ethics, Ontology, and Animal Life*, Foreword by Tom Rega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 Midgley, M., *Animals and Why They Matter*,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3.

- Merleau-Ponty, Maurice, *Phänomenologie des Wahrnehmung*, aus dem Französischen übersetzt und eingeführt durch eine Vorrede von Rudolf Boehm,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66.
- Nagel, T., "What is it like to be a bat?", in *Philosophical Review* 4(1974), 435-450.
- Radner, Daisie and Michael, *Animal Consciousness*,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6.
- Searle, John R., *The Rediscovery of the Mind*, the MIT Press, 1992.
-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new revised edition, New York: Avon Books, 1990.
- \_\_\_\_\_, *Practical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 1993.
- \_\_\_\_\_, "All Animals Are Equal.", in *Philosophic Exchange* 1, summer 1974.
- Steeves, H. Peter (ed.), *Animal Others : On Ethics, Ontology, and Animal Life*, foreword by Tom Rega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 Turner, Jacky and D'Silva, Joyce (ed.), *Animals, Ethics and Trade: the Challenge of Animal Sentience*, London·Sterling: Earthscan, 2006.

## Animal Pains and A Good Life

Joo-man Maeng

This paper takes aim at a reply to Professor Choi Hoon's critics of my two papers, "Peter Singer and the Ethical Vegetarianism"(2007), and "Animal Pain and Sensation of Plants"(2009). I argued three points by these two paper. First, Singer's sentience-based theory of moral status does not consider the meanings of pain in organism, especially human beings in its fullness. Second, the whole considerations for human pain including animals must deal with ontology and semantics of pains, including value theory of plant life, and third, I have argued that Singer's argument cannot be justified because his reasoning which is excluded his other sensations except pain-sensation is a kind of arbitrarily preferential considerations, although a plant cannot feel something like animal's pain, it seems to me that such a state of plant do not mean she is not conscious, moreover if the plant has some sensations, it can be said that she is also a conscious being.

Professor Choi went into detailed criticism that my arguments in my two paper cannot succeed through his two paper, "Was Professor Maeng Successful in Refuting the Ethical Vegetarianism of Peter Singer"(2009), and "Sentience Theory Reconsidered"(2010). This time I will still argue that sentience cannot be the only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of which decide on moral status of a being, and especially the pain is only one of elements which forms total activity of a life for his own good life. So I will develop this view under the title 'argument from the Integral Dependence based on A Good Life' in contrast with 'argument from the Isolated Independence based on the

동물의 고통과 좋은 삶 / 맹주만

Sentience' which is name after views of Singer and Professor Choi that I want to refuse.

Key Words: Hoon Choi, Peter Singer, animal pain, sentience, good life, perception

맹주만 e-mail: maengjm@cau.ac.kr

투 고 일	2010년 10월 17일
심 사 일	2010년 11월 01일
계재확정	2010년 11월 12일